



전남 경영자포럼, 중대재해 발생 예방 논의

전남도는 27일 전남경영자총협회 주관으로 순천 마리나컨벤션에서 중대재해 발생 예방과 지역 경제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제2회 전남 경영자 포럼에 참여했다. (사진)

이날 포럼에는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 전남경영자총협회 신명균 회장과 김철희 명예회장, 이성룡 광주지방노동위원장, 22개 시군 기업 대표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에 따라 지역 기업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순천대, 산업안전 진단 예방 전문기업이 패널로 참여한 토크콘서트가 진행됐다.

박창환 부지사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전남 경제를 든든히 지탱해주는 경영인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경영자와 적극 소통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전남’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광주상의, 제273차 광주경제포럼 성료

광주상공회의소는 지난 26일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를 초청해 기업체 대표 및 유관기관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73차 광주경제포럼을 개최했다. (사진)

이번 강연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지역혁신 및 일자리 창출 전략’이라는 주제로, 거대한 메가트렌드 속에서 우리 지역이 가장 우선 집중해야 할 지점들과 대응전략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마 교수는 “우리나라는 무형자산 등 4차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와 더불어 저출생, 고령화, 청년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등 인구구조 변화 또한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은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며, 이를 위해서 광주·전남은 광역 인프라 구축 및 거점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메가시티 조성이 필요하고 이는 이미 전 세계적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포크가수 은희와 시각장애인 만남 음악회 성료

‘꽃반지 끼고’, ‘등대지기’, ‘사랑해’를 부르며 1세대 포크가수로 활동했던 가수 은희와 시각장애인의 만남 음악회가 지난 26일 함평 민예학당에서 열렸다. (사진)

광주시시각장애인연합회 경로당(대표 김성근)이 주관하고 어둠속의빛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김갑주)이 후원해 이뤄진 이날 음악회에는 광주시각장애인연합회 경로당 회원과 활동지원

사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은희는 변함없이 티 없고 맑은 목소리로 ‘꽃반지 끼고’ 등을 들려주며 참가자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포크가수 은희는 지난 2003년 함평군 손불면 산남리 교촌마을 폐교 부지에 들어와 살면서 현판을 ‘민예학당’으로 내걸고 민중예술을 추구하고 있다.

박찬기 자



전남대병원, '제1회 기술설명회' 개최

전남대학교병원이 최근 병원 의생명연구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2024 제1회 기술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

지난 26일 광주시에 기술설명회에는 전남대병원 기승정의 생명연구원장, 허 환 기술산업화부장을 비롯해 의생명연구원 주요 보직자, 바이오 헬스 산업 분야 전문 기업 및 기술거래 유관 기관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전남대병원이 보유한 의료기기, 제약, 진단 분야의 사업화 유망기술 29건을 수요 기업에게 공개, 상생 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의 바이오헬스 기술사업화 전략 안내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이전 △사업화 금융지원 안내 △광주테크노파크의 기업 기술 지원사업 안내 등 기업별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한 개별 현장 상담도 진행됐다. 노병하 기자



전남도, 적극행정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전남도는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초, 공유재산 특정감사를 통해 누락자산 8208억원 발굴' 사례로 대통령상인 대상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사진)

이는 공유재산 관리 패러다임을 기존 형식적 실태조사 등 소극적 관리에서 벗어나 적극적 활용 중심으로 변화를 이끌어 전국으로 확산한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다.

특히 △시스템 누락 자산 8208억원 발굴 △방치된 지식재산권 등록 △불필요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통한 지방 재정 확충 및 주민 불편 해소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나주시의 '하루 365번의 특별한 약속, 연중무휴로 아이들의 행복을 책임지는 혁신적인 케어'가 우수상, 전남도의 '전국 최초 일조량 부족 농업재해 인정'이 장려상을 수상, 적극행정 선도 지자체임을 입증했다. 오지현 기자



광주 북구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재홍)는 27일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문인 북구청장과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돌봄이웃 135세대에 전달할 사랑의 김장김치 350포기나눔 행사를 가졌다. 광주북구제공

요아소비, 내한공연 앞두고 韓 방송 출연... 12월 '더쇼'

제이팝 열풍을 일으킨 일본 혼성 듀오 '요아소비(사진)'가 내한공연을 앞두고 국내 음악 방송에 출연한다.

27일 가요계에 따르면 요아소비는 내달 3일 오후 6시 방송되는 SBS M, SBS FiL '더쇼' 무대에 오른다.

요아소비는 같은 달 7-8일 인천 인스파이어나 아래나에서 아시아 투어 '요아소비 아시아 투어 2024-2025-초현실/조-겐지츠(cho-genjitsu)'를 예정하고 있다.

요아소비는 일본 애니메이션 '최애의 아이' 시즌 1 오프닝곡 '아이돌(アイドル)'을 통해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밴드다. 일본 아티스트 최초 '빌리언 히트'를 이뤘다.

요아소비의 단독 내한 콘서트는 지난해 12월 서울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연 '요아소비 아시아 투어 2023-



2024 라이브 인 서울' 이후 1년여만으로, 한국이 첫 해외 솔로 콘서트 개최지였다.

요아소비는 첫 내한에 이어 이번 콘서트 역시 전석 매진을 달성하며 압도적인 티켓 파워를 자랑한 바 있다.

곽지혜 기자



조선대, 탄소중립 전문가 양성 성과발표회

조선대학교는 최근 충남 태안 솔라고리조트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고온·저온 열펌프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최종 성과발표회 및 워크숍을 성료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사진)

이번 행사는 조선대가 주관기관, 고려대가 공동기관으로 참여해 중견기업 특화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초 단계로, 1차년도 성과 달성을 위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견기업 탄소중립 전문가 양성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기원이 주관하는 전문 사업으로,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기술혁신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조선대 관계자는 “이번 성과발표회가 산업의 탄소중립과 기술 융합을 선도할 전문가 양성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조선대병원, 테러 대비 교육·훈련 실시

조선대학교병원은 최근 병원 10층 회의실에서 테러 대비 교육 및 훈련을 실시했다. (사진)

지난 26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이날 훈련은 병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 위기에 대해 예방 및 테러 발생 시 병원 직원들이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미흡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주요 훈련내용은 △병원시설 대상 테러 사례 발표 △병원의 테러 예방활동 및 대책 △예방 및 대응 위한 추가 보안사항 도출 등이다.

훈련에는 김진호 조선대병원 원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 관리자 등 총 14여 명이 참석해 원내 테러 재난 상황에 대해 부서별 임무와 역할을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향 등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노병하 기자

임수정, 이민호 1인 소속사였던 MYM과 새출발

배우 임수정(사진)이 이민호와 한술밥을 먹게 됐다.

27일 MYM엔터테인먼트는 임수정과 전속계약을 맺었다며 “임수정과 동행해 뜻깊다.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MYM엔터는 이민호 1인 소속사로, 친누나인 이윤정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임수정은 지난해 영화 '거미집'과 '싱글 인 서울'에서 활약했으며 내년



디즈니+ '파인'으로 인사할 예정이다. '미생' 윤태호 작가의 동명 웹툰이 원작인 '파인'은 침몰한 보물선을 활용해 큰 돈을 벌어야 하는 이들의 이야기다. 임수정은 야망을 가진 '양정숙' 역을 맡았으며 '카지노' 강윤성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곽지혜 기자